

한국 정래협 귀중

북한 자료

- ① 박영심. 김영숙 자료
- ② 병신위안소 자료
- ③ 위안부 40명 명단

《전쟁과 너섬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

김부자선생 앞 (공통기소장자료전달진)

날씨가 점점 추워 지는데 《법정》 준비로 수고가 많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종인으로 나선 예정인 박영심과 김영숙에 대
한 자료를 보냅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개종언에 나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
련한 자료도 함께 보냅니다.

공통기소장 우리측안에 해당한 부록과 법정대본과 관련된
의견은 빠른 시일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주제89 (2000) 년 11월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씨 자료

이 름 : 박영심

생년월일 : [REDACTED]

출생지 : [REDACTED]

현주소 : [REDACTED]

전쟁당시 가정직행편 :

4명형제중 맏딸 (우로 오빠 2명 아래로น้อง생 1명)

어린 시절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이분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14살때 남포시 후포동에 있는 양복점에 팔려가 식모살이를 하였다.

전쟁년도 : 1938년 3월경 ([REDACTED])

전쟁기간 : 1938년 3월경 - 1945년

전쟁당시 직업 및 장소 : 남포시 후포동, 양복점에서 식모살이

전쟁경위 : 일본군사 (한글에 별 두개) 가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면서 평양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유개화차와 자동차에 싣혀 중국 남경으로 끌려갔다.

전쟁지역 : 평양→중국 남경→상해,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마마 항군부근의 라시오→마마 중국 국경지대인 함평의 송산 (마쯔야마) →몬멜포로수용소

《위안부》 생활경위 :

- 중국 남경에서

남경에 있는 (일본군병영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금수로》라는 《위안소》가 있었다. 《위안소》물때에는 가시철조망을 둘러치고 철조망의 군데군데 빈 통판일로를 매달아 놓았다. 《위안소》전물은 3층으로 된 벽돌집인데 대남의 크기는 2×2, 5미터정도이고 방에는 침대가 하나씩 있으며 출입문우에는 상당한 《위안부》의 이름과 번호가 붙어 있었다.

식사는 한공기의 쌀밥에 푸우열린 찌꺼기씩 주었다.

하루에 30명정도의 일본군인들을 대상해야 하였다.

여기서 《우다마루》로 불리우면서 3년정도 《위안부》생활을 하였다.

- 마마 라시오에서

남경 《금수로위안소》에서 3년간 있다가 2명의 일본군병사의 감시를 받으며 기차와 배로 상해, 싱가포르를 거쳐 마마의 항군부근 라시오에 있는 《위안소》로 끌려 갔다. 여기서 기본 일본군과 땅크병을 대상하였다.

《위안소》경영자가 《와카하루》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으며 2년간 있었다.

《위안소》는 건물 산속에 있었으며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다.

《위안소》의 이름은 일본어로 《잇가루로》라고 하였는데 《위안부》들은 마음

대프 출입할수 없었고 《위안부》들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는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낮에는 10명정도의 일본군병사들을 대상으로 밤에는 장교들에게 《봉사》해야 하였다.

병사들은 피임기구인 《악크》를 가지고 왔다.

라시오에서 2년정도 있었다.

- 함양의 송산 (마쯔야마) 에서

라시오에서 자동차에 싣혀 송산 (마쯔야마) 로 끌려와 여기서 전쟁이 끝날때까지 있었다. 《위안소》는 민가를 개조한 건물이었다.

하루에 30-40명정도의 일본군병사들을 대상하여야 했다.

송산 (마쯔야마) 에 온지 얼마 안되어 연합군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위안부》들은 일본군병사들이 먹은 주먹밥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으며 폭격이 있어 병사들이 방공호에 들어가 있을 때도 폭격속을 뚫고 방을 날라다 주어야 했다. 처음에는 12명의 《위안부》들이 있었는데 8명이 폭격에 죽고 4명이 살아 남았다.

제일 많이 오면 군인은 경리과에 있던 다니라는 군장과 오마 미노쿠라는 장교였다.

- 《위안소》에서 망한 폭행

하루에 평균 30-40명의 병사들을 치루어야 하였으므로 매우 고통스러웠다.

어느날 너무 고통스러워 한 장교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 높은 주먹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차다 못해 긴칼을 뽑아 복에 대고 《황군》의 맛이 어떤가 보라고 하면서 칼질을 하였다. 피가 흘러 온몸을 적시였지만 장교들은 자기 수욕을 다채우려고 끝까지 하였다.

일본군은 처녀들이 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면 처녀들을 어디론가 실어가거나 강물에 처넣어 죽이곤 하였다. 싸움마당에서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군인들이 술까지 마시고 탈려들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살아나게 된 경위

포로로 잡히어 살아나게 되었다.

- 포로로 잡히게 된 경위

일본군병사들이 군기를 불태우는것을 보고 일본군이 졌다는것을 알았다.

일본군은 전쟁에서 지자 《위안부》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저희들끼리 도망쳐 버렸다. 살아 남은 4명의 《위안부》들은 부서워서 방공호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던중 중국인병사에게 발견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미군인장교에게서 심문을 받았다.

중국군에 잡히기 전에 이미 임신된 상태에 있었다.

- 포로수용소에서

다른 3명의 《위안부》들과 함께 자동차에 싣혀 문명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메로 출혈하여 수용소의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중국인 의사가 수술을 하여 아이를 잃게 주었다.

수용소에는 7개월가량 있었다.

-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1946년 2월 남조선 인천까지 배를 타고 나와

서울과 성단을 거쳐 기차를 타고 9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귀국후의 생활

귀국하여 5-6개월만에 결혼하였으나 아이를 낳을수 없어 여육원에서 남자에게
를 매리다 지냈다. 남편은 1971년에 후두암으로 사망하였고 지금은 아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고 있다.

현재 가족은 본인외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손녀 다섯식구이다.

강서편직공장 분공장에서 책임자로 일하다가 1976년에 퇴직하였다.

건강상태

《위안부》생활의 후파로 자궁을 드러냈으며 심장판막증과 신경쇠약을 앓고
있으며 자면서 자주 악몽을 꾸다.

정신적고통이 심하여 마음을 가라 앉히기 위해 암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 흥분되며 최근에는 그때 이야기를 꺼내기만하면 울
머리가 혼란되고 정신이 미상해지곤 한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폭행을 당한 상처자국이 남아있다.

※박영십의 증언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와 관련한 자료들은 11월 6일 마우네
트 자관의 김영선생이 보내 준 화스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영숙 正崎 英淑

이 름 : 김영숙

생년월일 : [REDACTED]

출생지 : [REDACTED]

현재주소 : [REDACTED]

연행당시 가정적형편 :

7살때 군포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일본인장복에게 매를 맞아 반신불수가 되어 앓다가 3년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온 집안이 모두 불행히 들어지고 말았다. 10살때 태권군 학당리에 있는 어느한 지주의 생채김의 몸종으로 팔려 갔다.

연행년도 : 1939년 11월 [REDACTED]

연행기간 : 1939년 11월 - 1945년 8월

연행당시 적일 및 장소 : 평안남도 태권군 학당리 지주집 골방

연행경위 : 지주집의 집안 자주 다니던 일본순사가 《이 집에서 고생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입고 풍치돈을 벌수 있는 곳이 있으니 가자》고 하면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이미 15명정도의 조선저녁들이 와 있었으며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모두 다른곳으로 팔려 갔다. 모퉁정도 있다가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 기차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력하게 되었다.

연행지역 : 중국 심양

《위안부》생활경위 :

조선에서부터 끌고 간 일본순사가 중국 심양에 있는 일본군부대에 들어가 일본군장교에게 인계하였다. 나카무라라는 그 장교는 긴 단총집으로 끌고가 단총집의 편 할방에 들어 보내어니 일본옷을 입게 하고 《오다까》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위안소》는 일본군병영안에 있었으며 《위안소》주변에 5미터 높이로 담장을 치고 그 위에 가시철조망까지 늘어놓았으며 주변에는 항상 개와 보초가 치켜 서 있었다. 《위안부》들사이에 팔을 주고 받거나 밖에 나오는것은 일체 금지되어 있었다. 식사는 밤에까지 날마다 주었으며 보리나 콩장냉이밥에 엄장부우를 주었다. 하루에 20-30명정도의 군인들이 왔으며 주간에 보다 어두워진 다음에 더 많이 왔다. 돌아갈때는 군포를 주고 갔는데 그 군포는 정명자가 와서 걸어 가군 하였다.

《위안소》에서 알뜰 복행

13살밖에 나지 않았으므로 군인들의 성우를 만족시켜 두기에는 너무도 어린 몸이었다. 《위안소》에 들어간 첫날에 밤에 들어온 나카무라라는 장교는 너무 이

라여 수욕을 재촉할 수 없게 의자 등부를 넘기려고 칼질을 하였다. 칼질을 하는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해놓은 삼치자리가 부어오르고 질물이 나왔지만 치료 한번 해주지 않고 계속 《봉사》를 강요하였다.

한번은 말려드는 늑에게 반항하면서 팔을 물어뜯었는데 그날은 머리칼을 쥐고 머리를 밤바닥에 마구 짓밟아 놓았고 구두발로 다리를 사정없이 걸어왔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다리가 부어졌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가네무라라는 장교가 들어왔을 때 높은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그놈은 《조선년의 주저에 외국장교를 모욕할 것인가》하면서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는 《일본군대위안부를 모르는 년의 간을 꺼내먹겠다》, 《조선년의 업종을 보자》고 하면서 가슴에 칼질을 하고 배를 죽 가르는 것이었다. 살이 드러나고 피가 흘러 내리니 온몸을 적시었다.

종녀라는 《위안부》가 임신했을 때 일본군은 그의 손을 뒤로 묶어 전선대에 매달고 《위안부》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는 태를 몰라내어 《위안부》들의 목에 걸어 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마음대로 살해하였다.

《위안소》에는 25명의 조선녀성들이 있었는데 1945년 봄까지 살아 남은 녀성들은 5명밖에 되지 않았다.

살아나제, 편 경위

1945년 3월 어느 일요일 《위안소》에서 식모로 일하면 조선녀성과 한 조선인남자의 도움으로 일본군대병영의 담장을 뛰어 넘어 《위안소》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귀국후의 생활

일본군의 눈을 피하여 탈출을 도와 준 조선남자와 함께 몽골로 들어가 결혼하여 생활하였다. 전쟁이 끝난후 쓰촨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1946년 봄에 평안남도 화주군 수봉구로 나왔다.

1960년 전쟁시기 남편이 미국농민에게 피살되고 혼자 살았다. 후에 남포시로 이사하여 식당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법이 있어 불쌍한 사람이 있어야 했으므로 평안남도 온천군에서 살면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고 현재 남편이 불쌍하고 있다.

전장상태

《위안부》생활시기 망한 독행에 의해 입은 파우 습관결핵형성반월관손상으로 두 다리를 잘 쓰지 못하며 현재 두 다리가 경직된 상태에 있다.

1년정도 자미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다리를 심하게 앓았다.

《위안부》시기에 배에 칼질을 당한 후파로 수십년동안 위변을 앓았다.

방광기능장애로 때없이 소변을 본다.

일본군병사들의 행패로 온몸이 상처자리투성이이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군도로 배를 잡혀왔으며 젓가슴을 물어 뜯기웠다.

두 무릎과 간통에 무수한 칼자리와 담배불로 지진자리가 남아 있다.

조선강령 일본군이 설치운영하였던 방진 《위안소》에 대한 자료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시기

일본군은 1930년대 중엽 함경북도 경흥군 풍해면 방진리 (현재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23반)에 《풍해루》와 《은월루》라는 《위안소》와 《성병검진소》를 설치하였다.

《풍해루》는 1938년에 파진현병본전대 대장과 군부대 부대장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전 관동군소속 군속으로 복무하던 자가 일본군부대에서 전설자재를 공급받아 지은것이다.

《은월루》는 1930년대 중엽에 일본의 전설업체인 《다케모토구미》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은월루》는 전평이 약 200㎡정도의 단층목조건물로서 현판으로 들어가 오른쪽에는 식방과 취사장이 있고 왼쪽에는 접수 및 대기실과 《위안부》녀성들의 방들이 있었다. 방의 크기는 대체로 2.3×1.8m정도로써 2명이 겨우 누울수 있게 되어 있었다. 현재 이 건물들은 내부구조는 얼마간 변경되었으나 외부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배경

일제는 방진과 유진, 라진이 토씨야와 중학국경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 항구로서 요새지로 활용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로부터 조선강령직후부터 이 일대에 군사전략상 큰 의의를 부여하여 왔다.

조선에는 1910년대에 조선주둔군사령부의 지휘하에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라남에 제19사단이, 서울에 제20사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조선주둔군은 1918년부터 원항의 직속으로 되었다.

1937년이후 조선주둔군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담당하여 기동한 파진항의 방어 특히 반함공을 위해 《파진요새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40년에는 파진중포병연대를 배치하였다. 한편 일본해군은 파진항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파진에 파진방어대를 설치하였다. (《조선군개요사》)

1941년 10월부터는 해군에 의하여 《파진근거지대》가 설치되었으며 1942년 5월에는 《파진방면육병근거지대》로 개칭되었다. 이 근거지대의 임무는 근거지와 그 부근에 대한 경비, 항만방어, 통신보장 등을 담당하는것이었는데 필요에 따라 함대부대에 대한 보급과 수리작업 등도 진행하였다.

1941년 7월에 관동군특종연습 (관동연)에 의해 조선주둔군은 보다 정비되었다. 제19사단은 함경남북도를, 제20사단은 다른 도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라진, 현산, 진태, 피수의 요새들은 그 관관구들의 경비구역으로 되었다. 그리고 현병대본부 및 본대가 라남에, 현병본대가 라진에, 현병본전대가 청진에 배치되었다. 이저릴 쓰편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라진과 라남, 청진 등 이 일대는 일본육해군 및 현병대 등의 사령부와 근거지대, 본부가 배치된 주요거점으로 되었다.

전쟁말기의 라남사관구 (사령부는 라남) 부대들의 배치정형을 보면 라남에 주둔한 와비오지대 (대장 와비오소장=라남지구사령부, 제142경비대대, 제143경비대대, 포병보충대)가 라남 및 그 동서 두 측면을, 시즈즈수비대 (제144경비대대, 특설경비제451대대, 특설경비제452대대, 제410특별경비공병대, 제1보병포소대)가 청진 및 그 동쪽지구를 방어하였으며 라진에 주둔한 노다이부대 (대장 노다

이대과=제1선박수송사령부북선지구,선박통신대,선박포병대,제39독상근부대)를도 방
어에 힘하였다. (모리다 요시오, 《조선전쟁의 기록》 1964년)

또한 《구비》로 전 《해군주요관하부대일람표》(해군대신판방)에는 《파전방면
특별근거지대라진통신대》와 《파전방비대》의 소재지는 《파전만, 함경북도 풍해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파전방면특별근거지대전시일지, 1945년 5월 1일-5월
30일》(방위청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에는 유전해 《교사포대》, 장안만에 《방비
어소》가 설치되었으며 이부대에 1099명의 군인들이 있었다고 지적되어 있다.

△목적자들의 증언자료

— 광복전 방전터 실패에 대하여 목적자 남구현 (남자 1922년 년로보장)은
《당시 〈풍해루〉와 〈은월루〉전들이 있던 줄짜기에는 6-7세대의 조선인농가
가 산재해 있었는데 농들은 그 부근에 조선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것을 보기만
하면 못매를 안기군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풍해루〉와 〈은월루〉의 설치정위에 대하여 목적자 신탁천 (남자 1930
년생 해주의학대학 연구소 연구사)은 《내가 5살때인 1935년에 병원이 건
설되고 그 다음해에 〈은월루〉가 설치되었다. 〈풍해루〉는 1938년 7-8월
경에 설치된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건설하던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군 《위안소》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목적자 남구현은 《〈풍해루〉와 〈은월루〉
는 관동군 군속으로 복무하던 자들이 경영하였다. 〈위안부〉녀성들은 평균연령이
15-20살 안팎의 조선녀들이었으며 대부분이 강원도를 비롯하여 남쪽에서
끌려온 녀성들이었다. 〈풍해루〉에는 약 25명, 〈은월루〉에는 20명정도의 녀성
들이 수용되었다. 그들은 햇빛조이기를 하거나 호르는 개울에서 어지러워진 〈풍
물〉과 옷을 세탁하기 위해 밖에 나오는것이 고작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목적자 신탁천은 《일본군대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배를 타고 북
지에 상륙하여 〈풍해루〉와 〈은월루〉에 무리로 밀려들었는데 그때에는 요란한 군
좌소리로 하여 줄짜기가 떠나갈듯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방전 《위안소》에서의 《위안부》들의 생활에 대하여 목적자 최구경 (여자 1
919년생 년로보장)은 《〈풍해루〉에 있던 화자 〈하나표〉라는 녀성이 약 6
개월동안 머물러 있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얼굴에는 멍석이 돌고 몸에 걸치고 있는것이한 색삼은 원피스뿐이었
다. 그는 나에게 7년동안 지옥을 당하면서도 온 한통 손에 쥐여 본적이 없고
개만도 못한 취급만 받았다고 울분을 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목적자 김죽순 (여자 1923년생 년로보장)은 《〈은월루〉안에서는 매일과 같
이 군대들에게 구라담하는 녀성들의 예치러운 비명소리와 통곡소리가 그칠새없이
늘려 나오군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목적자 남구현은 《1943년 어느날 아침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항두막앞
을 지나다가 가마니에 싸여 있는 녀성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 녀성이 〈은월
루〉에서 〈위안부〉생활을 강요당한 〈남춘자〉였다. 그는 풍물이하의 성노예생활
이 더는 참을수 없어 도주하려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어 반죽음이 되도록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었다. 그의 은복은 심한 상처부상이었다. 나는 그가 같은 성을 가
지고 있었고 너무도 불쌍하여 동무들과 함께 묻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처녀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다.

일본군 《위안부》명단

No	이름	생년 월일	고향	편명지	편명 시기	편명 방법
1	최경생			경상남도 창원군 군수동장	1929- 1983.9	마을 구장이 공장에 데려다 준다고 속임
2	김대일			중국 장춘, 상해 남경, 싱가포르	1934- 1945.8	일본 아사카에 있는 《덴노지병원》 원장이 동경 제 12 사단의 《위안부》로 넘김
3	윤경애			싱가포르,	1941.7- 1945.8	평양에서 일본민간인이 인부모집
4	리복녀			중국과 소련국경지대 (북부만주)	1942- 1945.8	일본군병사들에게 납치
5	장수일			중국 치치하루	1941.9. 1945.6	서평양신발공장 일본인 감독이 좋은 일자리 제공
6	정우순			해산 일본군수비대병영, 중국 서남부, 광주	1934.6. 1937.	일본군수비대동원에게 강제현행
7	박복이			대만 기무사이포함품군병영	1943.5- 1945	구장이 일본에 보내준다고 유혹
8	리현숙			중국 상해주변 마을, 싱가포르 쇼아도리	1940. 가 을-1945	일본인이 일자리 제공
9	조현화			중국 북단장에서 일본군병영	1940. 10-1945	일본인이 강제로 납치
10	김군숙			중국 심양	1938.8-	일본인 3 명이 강제로 납치
11	김영실			함경북도 정동군	1942.- 1945.8	일본인이 일자리 제공
12	정송명			마마의 황궁 《여주에바》촌 잡보표 88 번째	1943.8- 1945	일본인이 돈벌수이 제공
13	장영하 (기혼자)			중국 금주성	1942- 1944	일본군에 납치
14	박복실			중국 로딩	1941.- 1945	빛값에 중국에 팔려감
15	최순환			중국 후북강성 토목산	1942/6- 1945	일본인기자가 소년가국단에 관수있다고 유혹
16	황선숙			중국 만주 신경	1941. 가을.	일본군인들에게 강제현행
17	최선영			소통안명 산주변	1937- 1944.3	일본인이 돈벌이 제공
18	정문복			중국, 싱가포르	1941.	
19	장길순			대만을 거쳐 인도네시아	1937.8- 1945	일본군대에 강제현행
20	최보부			중국 베이징군방외 일본군병영	1937.8- 1942	조선인형사가 돈벌이 제공

21	원봉화	중국 치치하루, 하이바루	1933.11. 1943	조선민간인이 돈벌이 죄임
22	곽종거	쏘만북경지대 통영	1939. 10-1942	일본감옥이 좋은 일자리 죄임
23	김복순	전라남도 목포	1943.	일본해군에 강제합치
24	정금옥	중국 대련	1939.불. 1945	일제장교에게 강제연행
25	박영심	중국 남경, 마마 화시 오, 함명 마프야마	1938.3. 1945	일본순사가 일자리죄임
26	김덕순	중국 하이바루	1937. 1945	구장이 잘 살수 있는 곳 이 있다고 죄임
27	황소관	중국 복단강 군수공 장	1936.4. 1943.7	구장이 풍장알선죄임
28	김광학	중국 함강	1944.8- 1945	일본군대에 강제연행
29	심정옥	쏘만북경지대, 대련	1943. 1945.7	조선민간인이 돈벌이 죄임
30	리춘화	중국 복단강 수양	1939	일본인이 돈벌이죄임
31	최종녀	인원	1943.7. 1945	구장이 돈벌이죄임
32	김영숙	일본 나코야, 오끼나 와, 중국 상해, 서주	1941.12- 1945	일본인이 돈벌이죄임
33	고재현	중국 안도현 저소	1939	일본인이 돈벌이죄임
34	김영숙	중국 심양	1939. 11. 1945.3	일본순사가 돈벌이죄임
35	의상옥	순천	1943	구장이 처녀동굴
36	최봉선	중국 사뎡 두 역전 전, 치치하루, 복단강	1939- 1945	일제헌병이 강제연행
37	리재현	중국 동남원	1937- 1939.3	일본인이 강제합치
38	조삼순	싱가포르, 마마	1937	조선민간인이 팔살수 있 다고 죄임
39	김정훈	중국 하이바루	1942	빗값에 팔머취감
40	김태화	중국 봉원성 홍경현	1936 가 을-1945	조선인형사의 풍장알선 죄임